

濟州島 地名에 나타난 한 語學的 要素에 關한 小考

朴 相 圭*

1. 序

오늘날 山이라는 語彙의 意味와 同一하게 쓰이고 있는 單語들을 열거하면 「산·되·메·언덕·계·嶺·峴·동산·오름·골·岳·突……」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共時的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山」이라는 共通的인 意味를 갖는다고 하여도 事實上 通時的인 측면의 言語事實로 본다면 과연 同一系 語彙들이라고 語源的으로 說明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결코 아닌 듯 싶지만 그렇다고 문제의 軸점을 모른다고 해서야 아니 될 것이다.

가장 간단하게 접근해 본다면,

- ① 산 : 漢字語의 韓語 音寫일 것이며
- ② 되(메) : 中期 韓國語일 것이며
- ③ 령 : 漢字語의 韓語 音寫일 것이며
- ④ 골 : 滿洲語 holo(谷)와 比較가 될 수 있는 理由는 Kol(골)과 'holo'는 語頭子音에서 'k : h'의 音韻對應關係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Altai諸語에서 흔히 볼 수 있다.
- ⑤ 오름 : 滿洲語 alin(山) 蒙古語(oola)와 比較될 수 있으며 蒙古語 oola + (-m) 添加語 > oorim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 경원대

⑥ 재: ‘재’는 ‘즈히>재’로 變化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子兮(즈히)’는 ‘재’의 古形態로 대체적으로 百濟地名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三韓系에서 ‘巴·只·基·支’와 同意味이다. 또한 ‘子兮’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秋子兮郡—秋城郡(潭陽縣)

⑦ 突: ‘突’은 ‘等良’ ‘月良’ ‘月奈’ ‘靈’ ‘珍’과 같이 사용하였으며 意味는 ‘山’이나 ‘高’였으며 三韓系 語彙로서 百濟地名에서 특히 볼 수 있으며 현재 全羅道地方에서 찾아볼 수 있다.

以上的 各各 다른 語彙 ‘산, 피, 령 골, 오름, 재, 突’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여기에서 共通點으로 나타나는 意味는 ‘山’이나 ‘谷’과 같은 것이나 通時的인 측면에서는 發生 年代는 대체적으로 各各 相異한 語彙가 대부분임을 알 수도 있었으며 또한 各 그 당시 나라마다 ‘山’이나 ‘高’나 ‘城’이나 ‘谷’…… 등이 약간씩 紐앙스의 差異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山’에 關係되는 語彙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측면에서 研究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으로 우리는 地名 등을 研究할 수 있으며 따라서 地名의 國籍 등도 어느 정도는 考察할 수 있음도 이와 같은 方法論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筆者가 本攷에서 論하는 意圖도 위와 같은 생각의 次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이 論文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各 現在 地名을 分析하여야 된다고 보는 바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濟州島만 국한을 시켰지만 이런 점은 확대시켜야 옳을 것이리라.

2. 濟州島 地名 研究의 必要性

一般的으로 濟州島를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研究된다는 것은 상당한 問題點이 있다고들 한다. 왜냐면 學者들마다 見解는 各各 相異하지만 대체적으로는 濟州島가 北方文化와 南方文化의 接合點의 線上에 놓여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 등을 막연하나마 갖고 있기 때문이다. 證明을 쉽게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北方文化만이 또는 南方文化만이 濟州島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누구나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점은 자못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濟州島 地名 研究의 必要性은 이런 점에서 意義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좀 더 科學的인 論理의 方法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겠고 細部的인 측면까지도 分析的 綜合的 結果가 導出되어야 하겠다.

濟州島 地名이 어느정도나마 整理가 된다면 韓國文化에 있어서 南方과 北方의 限界點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크나 큰 몫을 하리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매우 본 논문의 역사적 의의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이정표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믿을 수도 있을 것이라.

3.

① -구렁系

구렁系에 해당되는 지명은 제주도 특성 중의 하나이다. 의미로는 ‘우물’, ‘웅덩이’, ‘谷’……등이며 異形態로서는 ‘-구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어학적인 측면에서는 ‘-구렁>-구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가 된 후설모음화현상의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예는,

예) ‘들>뜰’

‘뜰다>뜰다’

‘불>뵤’

‘플>뵤’

과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렁系’가 ‘우물’, ‘웅덩이’, ‘谷’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는 다음의 예에서 그러한 요소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

예) ‘Köl’(lake) (Turkey)

“gol”(stream) (蒙古語)

‘Ko’(lake) (日本語)

'Худар'(well) (蒙古語)

'h'otdok'(well) (蒙古語)

'ido'(well) (日本語)

'hollo'(well) (Manchu어)

이상의 예는 모두가 'lake' 'well'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렁'系의 의미는 '우물, 웅덩이, 谷'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렁系'가 '도랑'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음운대응'관계를 통해서 보면 잘 나타나 있다고 보겠는데,

㉠ 'daichilah'u'(alter) (蒙古語)

'Kawaru'(alter) (日本語)

* 'terge'(carriage) (蒙古語)

'Kuruma'(carriage) (日本語)

.. 'debél'(clothing) (蒙古語)

'Kimono'(clothing) (日本語)

여기에서 K:t가 음운대응관계임을 알 것이며 따라서 '-구렁'과 '도랑'은 同意味임을 알 것이나, 단지 '-구렁'은 實辭의 虛辭化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점일 뿐이다.

또한 '-구렁'을 '우물'로 보았던 점은 제주도에서 특이하게 발견되는 것인데 그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cisə'(Pond, lake) (滿洲語 口語)

'Seri'(泉) (滿洲語 文獻語)

"Sihizə'(河原) (滿洲語 口語)

이상의 예에서 '-구렁' '도랑' '우물(샘)'과 意味論的으로 同次元에서 생각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따라서, '-구렁' '-구렁'의 共通祖語再構形은 'kVt'形이며 이 形態가 'kVl ~kVr'形으로 變하였다고 볼 수 있으리라.¹⁾ 그러한 語形으로는 'kól' 'gol'

1) -t>-r의 현상은 Nicholas Poppe교수의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을 참조 바람.

‘hol’²⁾……등의 形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kVt’形은 原來는 free form이었던 것이 bound form과 같은 축소된 기능을 가졌을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實在에 있어서 이러한 지명은,

① 안암구렁(제주시 도련 2동)

② 셋구렁(제주시 회천동)

등에서 볼 수 있다.

㉞ -굴(窟)系

굴(窟)系에 해당되는 지명은 제주도에 나타나는 어휘인데, 의미로는 ‘들’ ‘골짜기’ ‘마을’ ‘堂’ ‘洞’……등이며 특히 ‘堂’은 ‘골, 밭, 굴치, 꾸렁, 쟁이, 징이’ 등으로도 같은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어학적인 측면에서는 ‘-굴>-골’ ‘-굴>-굴’의 양면으로 볼 수 있겠는데 아마도 ‘-굴>-굴’로 된 듯하다. 이러한 이유는 음성모음이 양성모음화 되었다기 보다는 양성모음이 음성모음화 되었거나 또는 음성모음만이 남아 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지도 모른다.

㉞ -들/-들>-들

-히/-에>-에

-를/-를>-를

또한 ‘-굴(窟)’의 의미가 ‘골짜기’ ‘골’ ‘구렁’과 관련이 되었다는 그 증거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㉞ ‘hadə’(峯, mountain, peak) (滿洲語)

‘hada’(峯, mountain, peak) (滿洲語)

‘dupə’(洞穴, cave, grotto) (滿洲語)

‘dung’(洞穴, cave, grotto) (滿洲語)

이상에서 ‘hadə’와 ‘hada’는 ‘had’+‘-ə’ 또는 ‘-a’가 첨가된 形態라고 볼 수 있다면 共通祖語再構形은 ‘haC’形이다. 따라서 ‘-굴(窟)’의 共通祖語再構形

2) Altaï諸語에서는 語頭子音에 있어서 ‘k’ ‘h’ ‘g’가 對應關係를 참조 바람.

인 'kVt'와 比較해 본다면 語頭子音에서 'k:h'의 대응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音韻對應이 성립됨을 알 것이다. 따라서 '-굴(골)',의 의미는 '골짜기'가 될 것이다. 또한 'dupə'와 'dung'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리라.

實在로 이러한 지명은,

- ① 망산굴(제주시 도평동)
- ② 미력당(굴)(제주시 봉개동)

등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고구려어에서도 이런 예는 많이 찾을 수 있겠는데 이런 사실등을 통해서 '-굴(골)'은 滿洲語와 高句麗語의인 要素를 전혀 도의시킬 수 없는 語彙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滿洲語의 holo는 '谷'의 뜻으로 '忽'과 관련한 예를 들을 수 있겠고 따라서 '忽'은 意味論的으로는 '谷'의 의미다.

다음은 '東國郡縣沿革表'에 보이는 高句麗 地名과 新羅 景德王 16년에 改名된 것을 對照해 보이면 '忽'이 붙은 地名은 다음과 같다.

- ㉠ ① 述爾忽縣(爾一作彌, 一云 首泥忽)一峰城縣(坡州)
- ② 馬忽郡(一云 命旨)一堅城郡(抱川)
- ③ 童子忽縣(一云 幢山縣 又 仇斯波衣)一童城縣
- ④ 首爾忽一戍城縣
- ⑤ 買召忽縣(百濟 彌鄒忽)一邵城縣(仁川)
- ⑥ 買忽(一云 水城)一水城郡(水原)
- ⑦ 上忽縣(一云 車忽)一車城縣
- ⑧ 冬比忽貞州一開城郡(開城)
- ⑨ 伏忽郡一寶城郡(寶城郡)
- ⑩ 比列忽(一云 淺城郡)一朔庭郡(安邊)
- ⑪ 也尸忽郡一野城郡(盈德)
- ⑫ 冬音忽(一云 鼓鹽城)一海阜郡(延安)
- ⑬ 息城郡(一云 漢城郡 又 漢忽 又 乃忽)一重盤郡(載寧)
- ⑭ 內米忽郡(一云 池城 又 長池)一瀑池郡

- ⑮ 十谷城縣(一云 德頓忽 又 谷城 又 古谷郡)一鎮瑞縣(谷山)
- ⑯ 冬忽(一云 干冬於忽)一取城(黃州)
- ⑰ 冬斯忽郡一岐城郡
- ⑱ 水谷城縣(一云 買且忽)一檀溪縣
- ⑲ 達忽一高城郡(高城)
- ⑳ 仍忽縣一陰城縣(陰城)
- ㉑ 奈兮忽一白城郡(安城)
- ㉒ 沙伏忽一赤城縣(陽城縣)
- ㉓ 加羅忽一杆城郡(杆城郡)
- ㉔ 所忽達一僧山縣

이상의 많은 예에서 제주도의 지명어인 ‘-골(굴)’은 Altai語圈을 사용하는 部族들의 지명에서 나타난 요소와 동일함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제주도 지명의 특성 중의 하나는 北方的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다음 예에서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예 ① 蕪子忽一節城
- ② 肖巴忽一豐夫城
 - ③ 仇次忽一新城州(或云 敦城)
 - ④ 非達忽一大豆山城
 - ⑤ 鳥列忽一遼東城州
 - ⑥ 安寸忽一安市城(或云 九都城)
 - ⑦ 史忽一似城
 - ⑧ 折忽一銀城
 - ⑨ 甲忽一穴城
 - ⑩ 加尸達忽一犁山城
 - ⑪ 召尸忽一禾銀城
 - ⑫ 赤里忽一積利城
 - ⑬ 甘彌忽一鷲岳城
 - ⑭ 皆尸坤忽一牙岳城

⑮ 乃勿忽—鈿城

⑯ 尙利巴利忽—屑夫婁城

⑰ 甘勿伊忽—甘勿主城

이상에서 ‘忽’과 ‘城’의 關係는 ‘高’나 ‘達’을 의미하기 때문에 ‘골짜기, 와도’ 통하는 의미이고 본다면 ‘堂’과도 ‘洞’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제주도 지명의 ‘-굴(골)’系는 상당히 포괄적인 북방적 요소가 잠재해 있는 地名語이다.

㉠ -오름系

오름系에 해당되는 지명은 제주도의 가장 뚜렷한 지명어의 특성이다. 의미로는 ‘산’ ‘마을’ ‘언덕’ ‘岳’……등이며 異形態로는 ‘모르, 도름, 모루, 마루, 름’을 들 수 있으리라. ‘오름’이 ‘산’과 同意味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 ‘oola’(mountain) (蒙古語)

‘alin’(mountain) (滿洲語)

‘olahaan’(乾草) (滿洲語)

이기 때문에 ‘오름’은 ‘oola, +‘-m’(接尾語添加) > orium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봉아오름(제주시 봉개동)

② 불근오름(赤岳)(제주시 봉개동)

③ 신산모루(제주시 일도 2동)

④ 진—머르(남제주군 안덕)

⑤ 매—모르(남제주군 안덕)

⑥ 울뇌—머르(남제주군 오조)

⑦ 저바니—머들(남제주군 오조)

⑧ 빛—머르(남제주군 표선)

이상의 ‘오름’系에 관계되는 지명어를 살펴보았는데 일치하는 점은 모두가 ‘산’이나 ‘언덕’에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요즘 몇몇 民俗學者 中에서는 ‘아리랑’ 語源說을 ‘oola’와 ‘alin’에 근거를 두고서 이론체계를 펴는 분네도 있는 듯하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리랑’과 ‘oola’ 그리고 ‘alin’ 모두가 ‘山’과 ‘오름’에 연유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 더 신중할 문제는 있는 성도 싶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생략하기로 한다.

④ -미系

-미系에 해당되는 제주도의 지명어는 ‘물’ ‘우물’과 관련이 있는 듯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현상등은 北方語的인 요소가 있고 특히 高句麗語的인 要素와 더불어서 古代日本語, 蒙古語, 滿洲語的인 要素까지도 相通된다고 할 수 있으리라.

㉞ <A> 高句麗語的인 측면에서,

- ① 內乙買縣(一云 內甬米)一沙川縣
- ② 南川縣(一云 南買)一南川州
- ③ 泉井口縣(一云 於乙買串)一交河郡
- ④ 買忽郡(一云 水城)一水城郡
- ⑤ 述川郡(一云 省知買)一泆川郡
- ⑥ 深川縣(伏斯買)一浚水縣(水一作 川)
- ⑦ 橫川縣(一云 於斯買)一潢川縣
- ⑧ 狴川縣(一云 也尸買)一狼川郡
- ⑨ 水入縣(一云 買伊縣)一通溝縣
- ⑩ 伊珍買縣一伊川縣(伊川府)
- ⑪ 水谷城縣(一云 買且忽)一檀溪縣
- ⑫ 泉井郡(一云 於乙買)一泉井郡

이상의 ①~⑫까지 지명어에서는 ‘買’가 ‘水’와 ‘川’과 같은 意味임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가 ‘우물’이나 ‘물’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제주도 지명어인 ‘미系’ 語彙는 高句麗語的인 성격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地名の ‘물’ ‘덜’ ‘모르’와 同根語임을 알 것이다. 따라서 表文化博士가 지적했듯이 ‘nanaimo’는 Tungus族의 地名이라고 한 것처럼 濟州島의 ‘-머르系’ 地名語는 滿洲語 ‘moro’와 연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滿洲 Tungus語系語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머르系’ 地名語는 北方的인 要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實在에 있어서 이러한 지명은,

- ① 상장마르(고개)(제주시 도련 2동)
- ② 원지머르(고개)(제주시 도련 2동)
- ③ 은은머르(고개)(제주시 도련 2동)
- ④ 보대물(들)(제주시 아라 2동)

④ 곳系

-곳系에 해당되는 제주도의 지명어는 ‘마을’ ‘洞’ ‘밭’과 다양하게 관련이 있는 듯 보이며 異形態로는 ‘긱, 쿿, 갓, 굴, 꿀, 짖, 왓, 팻’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실정이다.

語學的인 面에서는

- ① 忽(城) <高句麗語>
- ② 達(tar) <高句麗語>
- ③ holo(各) <滿洲語>
- ④ tar(山) <古代托이기語>
- ⑤ dar(山) <오스만語>
- ⑥ 골(谷, 洞) <中世韓國語>

以上の ①②③④⑤⑥에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할 수 있으리라.

①②에서는 忽과 達과의 語學的인 問題인데 이런 것은 形態論的으로는 相異한 것처럼 보지만 이것은 意味論的으로 볼 때는 同意味異形態라고 할 수 있다.⁵⁾

5) 李基文교수는 그의 著書 ‘國語史概說’ 중의 高句麗語에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한 바 있다.

㉔ -머르系

-머르系에 해당되는 제주도의 지명어는 ‘고개’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는 듯 보이며 異形態로는 ‘마르, 머틀, 멀, 모르, 물’ 등이 있으며 특히 물系에는 ‘동산, 산, 언덕’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들(野)’의 뜻도 포함되는 지명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語學的인 面에서는,

- ① moro ‘동근’ <滿洲語>
- ② maNqən ‘丘’ ‘小山’ <滿洲語>
- ③ munggan ‘丘’ ‘小山’ <滿洲文獻語>

以上的 ①②③에서 볼 때에 共通祖語再構形은 mVn~mVr形임을 알 것이며 이 祖語形은 mVt>mVn~mVr로 變遷하였으며 mVr形에 母音이 添加되어서 ①의 形인 moro가 되었으며 ②③의 形은 mVn形에 다음 母音 사이에 子音이 끼어 든 形態라고 말할 수 있으며 ‘-ən’ 또는 ‘-an’은 이 語彙가 名詞이기 때문에 붙은 接尾語이다. 이런 現象은 Altai語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따라서 ‘-머르’系의 語彙의 意味는 ‘동근 형태의 고개 또는 언덕의 작은 구릉지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事實上 濟州島의 전체적인 섬의 형태는 작은 구릉지대가 많음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제주도의 섬에 있어서 現象이다.

또한 이러한 제주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머르系’地名語는 캐나다의 밴쿠버라는 도시 번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³⁾ 즉 언어지정학자인 表文化 교수는 ‘오늘의 지명은 곧 역사 자체를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라는 말을 序頭로 하면서 밴쿠버 등에서 ‘nanaimo’와 같은 地名이 많이 發見된다고 밝혔다. 바로 이 ‘nanaimo’라는 地名을 살펴볼 때 語尾 ‘-mo’와 濟州島

3) 1979년 6월 20일(수요일) 조선일보 일간지에서는 ‘北美 인디안 원류는 통구스族’이라는 題目으로 表文化 博士의 論文이 紹介되었었다. 여기에서 代表的으로 ‘nanaimo’라는 地名을 論하였다.

4) 위의 같은 날짜 일간지에서 表文化 博士는 밝힌 바 있었다.

地名의 ‘물’ ‘밭’ ‘모르’와 同根語임을 알 것이다. 따라서 表文化博士가 지적했듯이 ‘nanaimo’는 Tungus族의 地名이라고 한 것처럼 濟州島의 ‘-머르系’ 地名語는 滿洲語 ‘moro’와 연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滿洲 Tungus語系語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머르系’ 地名語는 北方的인 要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實在에 있어서 이러한 지명은,

- ① 상장마르(고개)(제주시 도련 2동)
- ② 원지머르(고개)(제주시 도련 2동)
- ③ 은은머르(고개)(제주시 도련 2동)
- ④ 보매물(들)(제주시 아라 2동)

㉞ 곳系

-곳系에 해당되는 제주도의 지명어는 ‘마을’ ‘洞’ ‘밭’과 다양하게 관련이 있는 듯 보이며 異形態로는 ‘긱, 쿿, 갓, 굴, 꼴, 갓, 왓, 팻’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실정이다.

語學的인 面에서는

- ① 忽(城) <高句麗語>
- ② 達(tar) <高句麗語>
- ③ holo(各) <滿洲語>
- ④ tar(山) <古代토이기語>
- ⑤ dar(山) <오스만語>
- ⑥ 골(谷, 洞) <中世韓國語>

以上の ①②③④⑤⑥에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할 수 있으리라.

①②에서는 忽과 達과의 語學的인 問題인데 이런 것은 形態論的으로는 相異한 것처럼 보지만 이것은 意味論的으로 볼 때는 同意味異形態라고 할 수 있다.⁵⁾

5) 李基文교수는 그의 著書 ‘國語史概說’ 중의 高句麗語에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한 바 있다.

①③역시 高句麗語와 滿洲語의 關係인데 ①의 hol와 ③의 holo는 同形態 同意味이다. 그 이유는 holo의 形態는 'hol+o(接尾語添加)>holo라는 形態로 開音節化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④⑤역시 同根語이며 同形態이다.

⑥의 'Kol'은 ①③形態와 同形態이며

②④⑤와도 意味論의으로 같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①②③④⑤⑥의 形態 사이에는 서로 相互關係가 있음도 알 수 있으리라.

또한 '곳'은,

Kot>Kol~Kor 또는 Kot>Kol~Kor(接尾語 '-ccagi添加)>Kolccagi~Korccagi로 된 듯하다. 이런 例는, Ainu語의 경우에서 'Kotan'이 'village' 'country'와 關係가 있어서 'Kot'이 'village' 또는 'country'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琉球語의 경우에서도 'Kusiku'가 '城'의 意味인 것도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Kot>Kol~Kor 또는 Kot>Kus+i>Kusi가 되어서 Kot>Kusi>Kusiku로 變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結局은, '-곳系'의 意味는 '山' '마을' '洞' '계곡' 등과 연결됨을 알 수 있으리라. 즉 '-곳系'는 '곳'이 實辭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實辭의 意味가 虛辭化된 後에도 그대로 意味만은 內在해 있음을 알 것이다.

實在에 있어서 이러한 지명은,

- ① 목곶(마을)(남제주군 성산 신산(신천))
- ② 가매왓(밭)(서귀포시 송산 신희 영천 예래)
- ③ 성창굴왓(들)(서귀포시 월평동)
- ④ 내곶(마을)(서귀포시 송산 신희 영천 예래)
- ⑤ 다랏-곳(마을)(제주시 월평동)

4. 結 語

以上과 같이 筆者는 濟州島地名研究의 必要성과 地名事例 중에서 '-구렁,

-굴(굴), -오름, -미, -머르, -긱系'를 중심으로 比較言語學的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濟州島地名語의 語學的 要素 중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高句麗語的인 要素
2. 滿洲語的인 要素
3. Tungus語的인 要素
4. 蒙古語的인 要素
5. Ainu語的인 要素
6. 琉球語的인 要素
7. 古代日本語的인 要素

등이 대체적으로 內在해 있던가 表出되어졌던가 하는 言語的 現象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런 機會를 토대로 앞으로는 濟州도의 지명어의 言語的 特徵을 考究할 必要가 있을 것이라.

또한 앞에 제기된 문제 중에서 나의 見解가 미비한 점은 차후 정정 또는 보충할 것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또한 先學 同學 後學의 깊은 격려를 바라는 바이다.